

‘마이네임’ 한소희, “첫 액션, 목숨 걸고 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 김진민 감독 차기작
액션 누아르 도전...8부작 오는 15일 첫 방송

배우 한소희가 액션 누아르에 도전했다. 한소희는 5일 진행된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 네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르라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마이 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한소희 분)가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하는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린 8부작 드라마로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의 김진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가 속해 있던 조직에 일원으로 들어가 복수를 꿈꾸는 지우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직의 보스

무진(박희순)의 제안으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혜진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경찰에 잠입한다. 지우에 대해 한소희는 “복수를 위해 미래와 이름을 다 버린 캐릭터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지우의 처절함이 느껴졌다”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목격의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에서는 강단이 느껴졌다. 용기와 연민이 모두 있는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액션 연기와 관련해서는 “액션 스퀴에서 수업을 받는데 잔폭을 부리면 망하겠다고 느꼈다. 상대와 합을 맞춰서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어야 해서 부담이 컸다. 또 혹여나 다칠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기도 했다.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이 네임의 액션은 목숨이다. 목숨을 걸고 했다”며 “정말 처절한 액션이 많다. 살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액션이 많다. 목숨 걸고 하는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박희순은 국내 최대 마약 조직 동천파의 보스 무진을 연기했다. 지우를 조직원으로 받아들인 숙내를 알 수 없는 캐릭터다. 그는 “여성이 원뿔인 누아르 장르다. 기존의 차가웠던 누아르 작품과는 다른 뜨거운 피가 솟아오르는 작품이었다”며 “충격적이고도 신선한 ‘인간수업’을 만든 김진민 감독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지우의 파트너 필도 역은 안보현이 맡았다.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이자 마약 수사대 에이스 형사로 한소희와 마수대 선후배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안보현은 “김진민 감독의 팬이었



다. 시나리오가 술술 읽혔고 액션 누아르를 해보고 싶었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마약수사대의 팀장 기호 역의 김상호, 동천파의 2인자이자 무진의 오른팔 제주 역의 이학주, 동천파의 조직원 강재 역의 장룡이 함께했다. 15일 공개된다.



송혜교·장기용 설레는 눈맞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송혜교와 장기용의 역대급 멜로가 시작된다. SBS 새 금토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측은 5일 송혜교와 장기용의 투샷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군중 속에서 서로에게 시선을 고정한 두 사람, 빗속에서 하나의 우산을 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그저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렘, 애뜻함 등 다양한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며 시선을 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기대작으로 꼽히는 결정적 요인은 송혜교(하영은 역)와 장기용(윤재국 역)의 만남이다. 섬세한 감정을 바탕으로 ‘송혜교의 멜로’를 하나의 장르로 만든 송혜교, 매력적인 눈빛과 목소리로 시청자의 감정 이입을 끌어내는 장기용이 로맨스로 만나 기대를 높인다. ‘월 더 무먼’ 후속으로 오는 11월 첫 방송 되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짝고 맵고 시고 쓴 이별 액츄얼리티다. ‘미스티’ 제인 작가, ‘남산당터 김사부?’ 이길복 감독이 의기투합했으며 ‘미스티’와 ‘부부의 세계’를 크리에이티브한 글Line&강은경이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이정권 ‘신곡’ 이승윤 작곡 참여해 ‘화제’

가수 이승윤이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과시했다. 가수 이정권의 신곡 ‘그리움은 버릇처럼’이 지난 4일 발매됐다. 이 곡은 JTBC ‘싱어게인 시즌1’ 우승자 이승윤이 작곡에 참여해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승윤은 ‘싱어게인’에 함께 출연한 이정권을 위해 흔쾌히 작곡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움은 버릇처럼’은 발매를 앞둔 이정권 정규 1집 앨범의 선공개 곡으로, 16인조 스트링의 풍성함이 돋보인다. 이승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제가 작곡하고 정권이 가사를 입혀 부른 노래가 발표 되었습니니다. 저는 코러스로도 참여했습니다”라며 음원 발매 소식을 전했다. 이어 “매우 아끼는 노래였으나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어느 날 정권이 집에 놀러왔을 때 찾기에, 제 욕심에 떠밀듯 쥐어주곤 마음가는대로 완성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뮤지컬 ‘레베카’ 이장우·김준현·에녹 합류



다음 달 개막하는 뮤지컬 ‘레베카’가 여섯 번째 시즌을 완성할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EMK뮤지컬컴퍼니는 5일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캐스팅 영상을 공개하며 여섯 번째 시즌의 주·조연 캐스팅 라인업을 발표했다. 빼어난 아름다움과 명성을 자랑하는 맨달리 저택을 소유한 영국의 최상류층 신사 ‘막심 드 윈터’ 역에는 배우 민영기, 김준현, 에녹, 이장우가 캐스팅됐다.

주인공인 ‘막심’ 역으로 뮤지컬 관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민영기가 2017년 이후 다시 컴백해 기대를 모은다. 카리스마와 강렬한 목소리의 김준현은 여섯 번째 시즌에 처음 합류해 새로운 ‘막심’을 탄생시킨다. 2013년 ‘레베카’ 초연 당시 ‘책 파벨’ 역으로 공연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에녹은 주인공 ‘막심’에 새롭게 도전한다. 또 드라마 ‘장밋빛 연인들’, ‘하나뿐인 내편’, ‘우아한 개’, ‘오! 삼광빌라’ 등과 예능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대

신영숙·옥주현 귀환

중들에게 친근한 이장우가 2019년 뮤지컬 ‘영웅본색’ 이후 인생 두 번째 뮤지컬 ‘레베카’로 선보인다. 레베카의 신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은 맨달리 저택의 집사 ‘덴버스 부인’ 역에는 배우 신영숙과 옥주현이 나선다.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신영숙은 2013년 초연 이후 이번 시즌까지 한차례도 빠짐 없이 ‘레베카’와 함께한다.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의 ‘덴버스 부인’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뽐낼 예정이다. 옥주현도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돌아온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욱 매혹적인 옥주현 표 ‘덴버스 부인’의 귀환이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여리고 순수한 여인이었으나 강인하고 굳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나(0)’ 역엔 임혜영, 박지연, 이지혜가 캐스팅됐다. ‘레베카’ 초연 당시 맞춤 웃음 잃은 듯, 청초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많은 사랑을 받은 임혜영이 오랜만에 컴백한다. 박지연은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나(0)’ 역으로 돌아와 안정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2017년, 2019년에 이어 이번 시즌까지 세 번째로 ‘나(0)’ 역에 캐스팅된 이지혜는 ‘덴버스’와의 가장 대결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뛰어난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레베카’는 오는 11월16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하며 내년 2월 27일까지 3개월간 공연한다.

‘오징어 게임’ 주역 ‘지미 팰런쇼’ 출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를 비롯한 주역들이 미국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쇼’에 출연한다. 넷플릭스 등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주역들이 미국 NBC 간판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한다. 지미 팰런쇼와 넷플릭스 측은 아직

구체적인 출연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위하준이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 주역들의 지미 팰런쇼 출연은 6일(현지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9회 분량의 드라마다. 미국을 비롯한 넷플릭스 전 세계 TV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지미 팰런쇼는 바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물론 레이디 가가, 브래드 피트,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출연하는 인기 토크쇼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 등도 출연한 바 있다.

김수현, 살인용의자 대학생 변신

쿠광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 11월 공개

쿠광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의 배우 김수현이 살인용의자가 된 대학생으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됐다. 오는 11월에 공개될 첫 번째 쿠광플레이 시리즈 ‘어느 날’ 측은 5일 김수현의 첫 스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극 중 ‘김현수’(김수현)가 살인용의자가 되기 직전의 면면으로 긴장감을 높이는가 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가끔은 일탈도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캐주얼한 복장과 덩수룩한 헤어로 변화를 준 김수현의 청량한 눈빛도 볼 수 있다. ‘어느 날’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김현수’와 진실을 묻지 않는 밀바다 삼류 변호사 ‘신중환’(차승원)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하드코어 범죄 드라마다. ‘편지’, ‘괴수말’, ‘열혈사제’ 등의 이명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김수현은 ‘어느 날’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평범한 대학생 김현수 역을 맡아 연기 변신에 돌입한다. 그는 김현수 역을 통해 하루아침에 살인 용의자로 몰리며 일상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는 디테일한 감성 연기를 보여줄 예



정이다. 김수현은 “어느 날’에서는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러 정의가 충돌한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는 현수를 표현해 보려고 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김수현은 ‘어느 날’의 중심에서 극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보석 같은 배우”라며 “김수현은 김현수 역을 통해 해맑은 모습부터 혼란스러운 격돌까지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감정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김수현의 활약이 돋보일 ‘어느 날’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유, 7개월 만에 신곡...‘스트로베리 문’ 발매

개념 티저 이미지 공개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7개월 만에 신곡을 발매한다. 5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아이유는 디지털 싱글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의 개념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에는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쥔 아이유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호화로운 색감의 배경과 민들레, 무지개 등 키치한 그래픽 요소들이 삼중 발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티저 공개에 앞서 아이유는 지난 1일 “스트로베리 문이 뜨면 다시 만나. 아이유로부터”(meet again when strawberry moon comes up from IU)라는 글귀와 함께 거대한 붉은 달이 그려진 이미지를 공개해 신곡 공개를 예고했다. 아이유의 이번 신곡은 지난 3월 정규 5집 ‘라일락’ 발매 이후 처음이다. 아이유는 지난 1월 선공개 곡 ‘셀러브리티’를 시작으로 ‘라일락’까지 연이어 발매하며 히트 행진을 펼쳤다. 영화 ‘브로커’ 촬영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이다.



데뷔 13주년을 맞아 지난달 18일 데뷔 기념일에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도 했다.